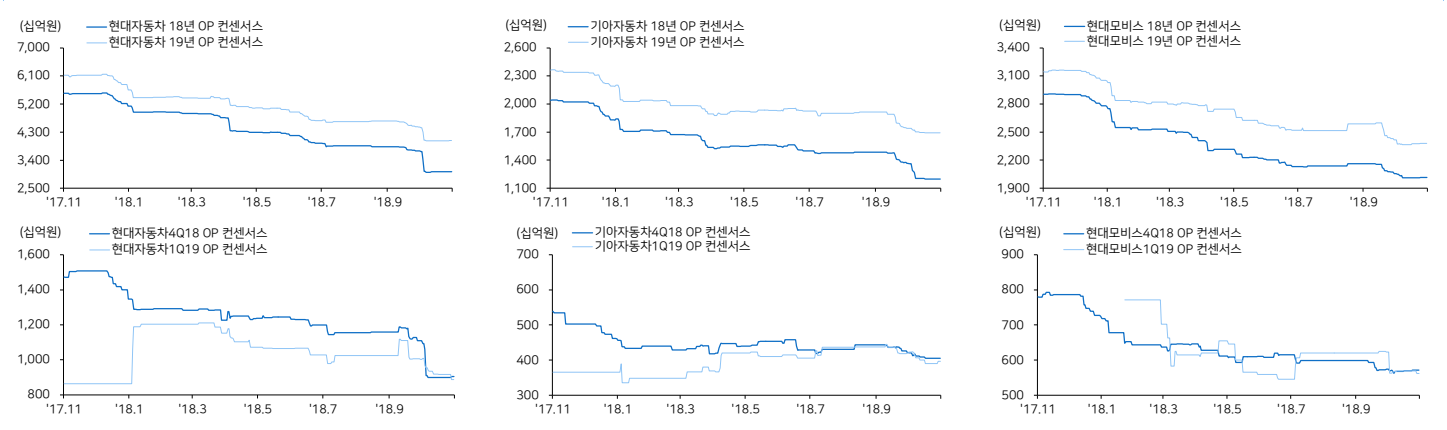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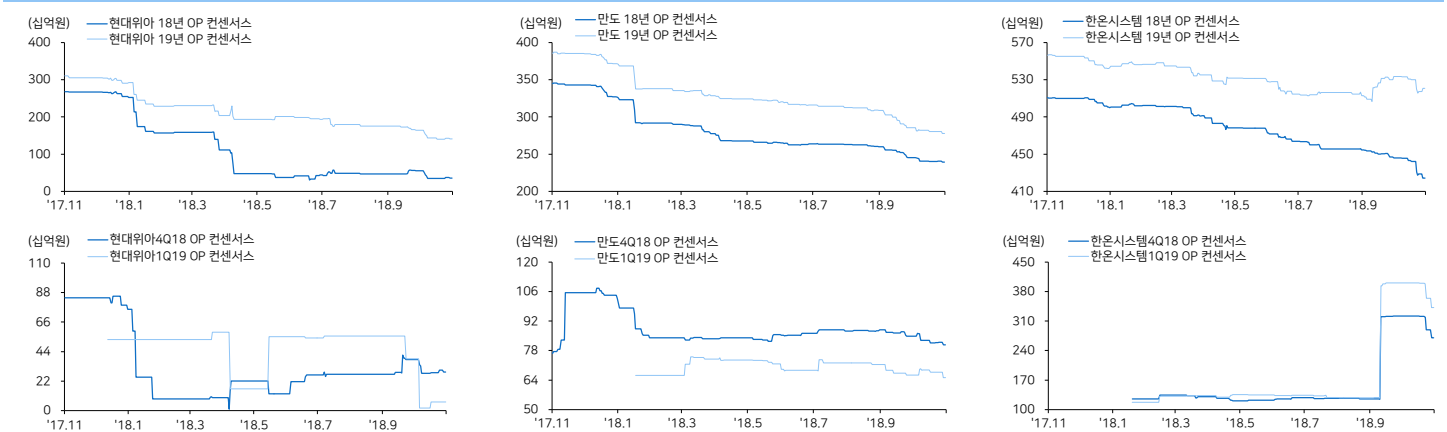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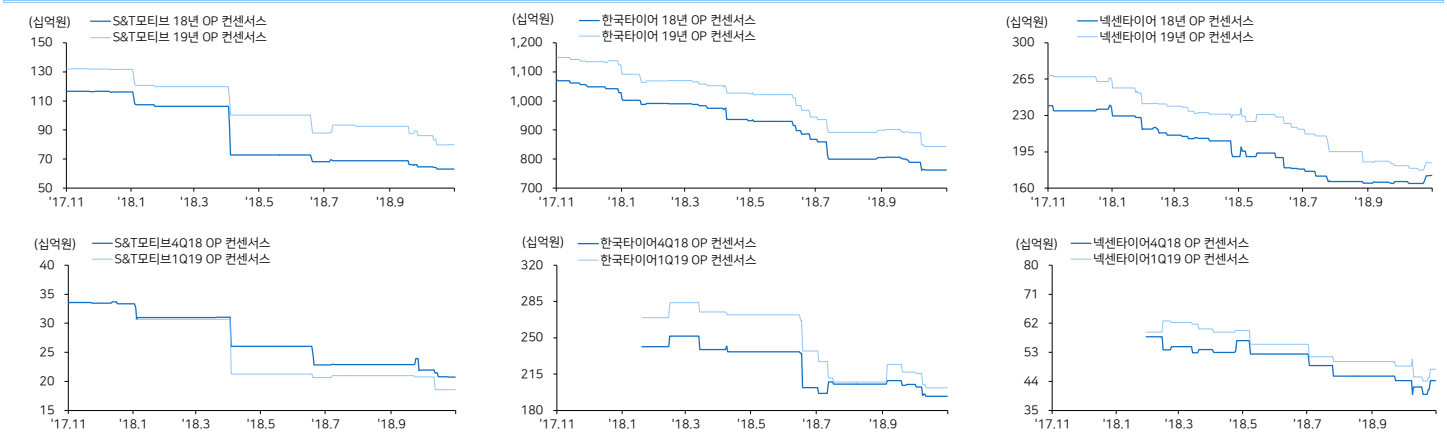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의 주요 뉴스

### 현대모터에버, 코스피 상장예심 신청... "디지털 경쟁력 강화" (아시아경제)

현대모터에버는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상장을 통한 R&D 투자자금 조달 및 기업 인지도 제고, 우수인재 확보 등으로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상장 예심을 신청. <https://bit.ly/20Yilpf>

### 현대차 시가총액 20조 밀... 삼성동 명값의 1.8배 불과 (뉴스원)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 밑으로 추락, 삼성동 부지 매입 가격의 2배도 안 되는 수준, 미국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관련 리콜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악재가 원인으로 작용. <https://bit.ly/2z14wlc>

### 트럼프, 獨 자동차 3사 CEO 백악관 초청 검토... 왜? (뉴스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 폭스바겐, BMW, 다임러의 CEO를 수입 내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번 CEO 초청은 독일을 압박해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됨. <https://bit.ly/2FJUnbT>

### 獨 BMW, 중국 자동차 공유 서비스 시작 (연합인포맥스)

BMW가 중국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BMW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위해 7개월 전 100% 투자해 현지에 BMW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설했음. BMW는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bit.ly/2FCHegp>

### 현대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시장 대비 기술스타트업 적극 투자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245개 사(건설, 금융업종 제외)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출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는 총 20곳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 <https://bit.ly/2R3QLJy>

### 헤이딜러 "운전자 66%, 친환경 차인 전기차 구매의사 있다" (여행레저신문)

헤이딜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6%가 다음 차량을 구매할 때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응답.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유에서는 '저렴한 연료비가 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차량 구매 지원금과 세금혜택 등'이 31%로 나타났다. <https://bit.ly/2DR11qx>

### 한국타이어가 겨울용 타이어 비교 테스트서 '최고' 성능 (부산일보)

한국타이어는 자사의 겨울용 타이어인 '윈터 아이센트 RS2'와 '윈터 아이센트 예보2', '윈터 아이파이크 RS2'가 유럽 전역에서 진행된 겨울용 타이어 비교 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톱 티어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https://bit.ly/2qZEq2L>

### S&T모티브, 6000억원대 인도 소총시장 다시 두드러나 (글로벌이코노믹)

국내 최대 소총 제조업체 S&T모티브의 인도 소총 공급계약 체결 가능성이 열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UAE 제조업체의 사업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도 정부가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기 때문. <https://bit.ly/2AauMOH>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 고지 및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2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2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2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확신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